

제주SK “수원성 함락시키고 1부 잔류”

3일 수원 삼성과 K리그1 승강 플레이오프 원정경기
유리·남태희·김승섭 앞세워 첫판 다득점 승리 조준

시즌 최종전에서 종료 직전 김승섭의 극장골로 자동 강등의 치욕에서 벗어난 제주SK FC가 또 한 번의 승전고를 울리기 위해 수원성 함락을 선언했다.

제주SK는 이날 3일 오후 7시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K리그2 2위 수원삼성과 K리그1 잔류를 위한 승강 플레이오프 원정경기를 치른다.

제주는 지난달 30일 시즌 최종 38라운드 울산과의 원정경기에서 후반 44분 터진 김승섭의 결승골로 1-0으로 승리하고 10승9무1패 승점 39로 리그 11위를 확정했다.

제주와 수원은 이날 승강 플레이오프 1차전에 이어 오는 7일 오후 2시 제주월드컵경기장으로 옮겨 2차전을 벌이며, 승리 팀은 1·2차전 합산 점수로 결정된다. 합산 점수가 같으면 2차전 장소에서 바로 연

장전을 벌이고 연장전에서도 승패가 나뉘지 않으면 승부차기로 최종 K리그1 잔류여부를 가리게 된다.

제주는 지난 2019년의 강등 치욕을 두 번 다시 맛볼 수 없다며 원정 1차전부터 다득점 승리에 도전한다. 제주는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플레이오프는 제주의 자존심을 지키고, 팬 여러분의 신뢰에 보답해야 하는 우리 모두의 승부”라며 “선수, 코칭스태프, 프런트 모두 심기일전해 승강 플레이오프 두 경기에 모든 것을 걸고 팬의 자부심을 다시 세우는 경기로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제주 김정수 감독대행은 시즌 최종 결승골의 주인공 김승섭을 플레이오프에서도 조커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시즌 13골로 팀 최다 득점을 기



제주SK 선수단이 경기에 앞서 결의를 다지고 있다.

제주SK FC 제공

록하고 있는 유리 조나탄과 시즌 6골의 남태희, 그리고 중원 이창민으로 이어지는 플레이가 살아난다면 충분히 다득점과 함께 수원성 함락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후반 리베로 역할을 해줄 김승섭과 신상은의 파급력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제주는 지난 2023년 시즌 수원삼성과의 경기에서도 3승1패로 앞서고 있는 데다 3승 모두 두 골 이상의 다득점으로 승리한 만큼 원정의

부담을 덜고 다득점으로 기분좋은 승리를 챙기겠다는 복안이다.

문제는 체력이다. 수원은 1주일 이상 휴식 시간을 가졌지만 제주는 이를 밖에 쉬지 못한 만큼 공격진들의 체력 회복이 이뤄졌는지가 1승을 가르는 관건이 될 전망이다. 그나마 울산과의 최종전에서 막판 승리를 위해 유리 조나탄과 남태희를 조기 교체한 게 그나마 다행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위영석기자 yswi1968@ihalla.com

폰세·안현민, ‘프로야구대상’ 공동 수상

코디 폰세(한화 이글스)와 안현민(kt wiz)이 2일 서울 강남구 라움 아트센터에서 열린 2025 조야제약 프로야구대상 시상식에서 공동 대상을 차지했다.

올해 뜨거웠던 두 선수는 최고의 활약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아 상급과 트로피의 주인공이 됐다.

폰세는 올 시즌 29경기에 선발 등판해 KBO리그 신기록인 개막 선발 17연승을 질주했고, 한 시즌 최다 탈삼진 신기록인 252개를 남겼다.

17승 1패 평균자책점 1.89로 활약한 그는 한화를 19년 만에 한국 시리즈 무대까지 이끌었다.

미국으로 출국한 폰세를 대신해 아내인 에마 폰세가 대리 수상했다. 안현민은 112경기 타율 0.334, 22홈런, 80타점, OPS(출루율+장타율) 1.018로 리그를 지배한 타자였다.

안현민은 “내년에도 대상을 받은 선수에 걸맞게 올해보다 좋은 성적내는 선수 되겠다”면서 “우승이 목표다. 우승한다면 한국시리즈 최우수선수(MVP)를 받아보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최고 투수상과 최고 타자상은 임찬규(LG 트윈스)·원태인(삼성 라이온즈)과 송성문(키움 히어로즈)에게 각각 돌아갔다.

연합뉴스



2025 조야제약 프로야구대상을 수상한 안현민(왼쪽)과 코디 폰세(에마 폰세 대리 수상). 연합뉴스



최고의 폼이지만... 팀은 연패를 미국프로농구(NBA) 덴버 너기츠가 니콜라 요키치의 시즌 11번째 트리플더블(한경기에서 주요지표 3개 두 자리 수 기록) 맹활약에도 홈에서 4연패를 당했다. 덴버는 2일(한국시간)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의 볼 아레나에서 열린 NBA 홈 경기에서 밀러스 매버릭스에 121-131로 졌다. 요키치는 29득점·20리바운드·13어시스트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홍명보호, 월드컵 우승확률 0.3%”

오타 슈퍼컴퓨터 분석... ‘1순위’는 스페인 17%

축구 기록 전문 매체 ‘오타’가 2026 북중미 월드컵 조 추첨을 앞두고 전망한 한국 축구대표팀의 우승 확률은 0.3%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우승 확률은 스페인의 17%였다.

오타는 2일(한국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2026 북중미 월드컵 조 추첨을 앞두고 오타 슈퍼컴퓨터를 통해 내년 대회 결과의 초기 예측을 했다”고 밝혔다.

오타는 “아르헨티나가 2개 대회 연속 우승에 도전하는 가운데 2022 월드컵 준우승팀인 프랑스와 유로 2024 챔피언인 스페인이 강력한 경쟁자가 될 것”이라며 “잉글랜드와 브라질, 포르투갈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 엘링 홀란(맨시티)이 이끄는 노르웨이가도 주목할 만하다”고 설명했다.

오타 슈퍼컴퓨터가 본선 진출을 확정한 42개국에서 가장 높은 우승

확률로 꼽은 국가는 17%의 스페인이다. 오타는 “스페인인 유로 2024에서 7경기 중 6경기를 90분 안에 승리로 마무리했고, 8강에서 독일을 꺾을 때만 연장전이 필요했다”며 “스페인은 최근 A매치에서 31경기 연속 무패(25승 6무)를 기록했다. 마지막 패배는 2023년 3월 28일 스코틀랜드 원정(0-2패)이었다”고 소개했다.

스페인에 이어 프랑스(14.1%), 잉글랜드(11.8%), 아르헨티나(8.7%), 독일(7.1%), 포르투갈(6.6%), 브라질(5.6%), 네덜란드(5.2%), 노르웨이(2.3%), 폴란드(2.0%)가 우승 확률 톱10을 구성했다.

일본은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17위(0.9%)를 차지했고,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무대에 진출한 한국은 0.3%의 우승 확률로 이집트, 알제리와 함께 공동 26위에 올랐다.

최형우, ‘삼성 이적설’ 질문에 “곧 알게 될 것”

프로야구 자유계약선수(FA) 시장을 뜨겁게 달구는 최형우(41)가 자신의 거취에 입장을 밝혔다.

최형우는 2일 서울 강남구 라움 아트센터에서 열린 2025 조야제약 프로야구대상 시상식에서 기록상을 받았다.

올 시즌 최형우는 133경기에서 타율 0.307, 24홈런, 86타점으로 녹슬지 않은 기량을 자랑했다.

FA 자격을 취득한 그는 KIA와의 협상 결렬된 이후 친정과도 같은 삼

성 라이온즈와 계약을 눈앞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최형우는 2008년 데뷔 후 삼성에서 출근 뛰다가 지난 2017년 KIA와 4년 총액 100억원짜리 FA 계약을 체결했다. 2021년에는 3년 총액 47억원에 FA 재계약했고 지난해에는 2년 22억원의 비(非)FA 다년 계약을 했다.

행사 진행을 맡은 박지영 아나운서가 최근 불거진 이적설을 묻자 그는 “곧 아실 것 같다”는 의미심장한 답을 남겼다.

연합뉴스

女핸드볼, 카자흐스탄 꺾고 세계선수권 결선리그 진출

한국 여자 핸드볼 대표팀이 세계 선수권 결선리그에 진출했다.

이계청 감독(삼척시청)이 이끄는 우리나라는 1일(현지시간) 독일

트리어에서 열린 제27회 국제핸드볼연맹(IHF) 여자 세계선수권대회 6일째 조별리그 H조 3차전에서 카자흐스탄을 35-17로 물리쳤다.

조별리그를 1승2패로 마친 우리나라는 브라질(2승), 스웨덴(1승 1패), 체코(2패)와 결선리그에서 격돌한다.

연합뉴스



제31회 자랑스러운 읍민대상 수상을 축하드리며

수상자분들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대 상



강 석 중
(용흥리)

본 상
(사회봉사)



김 덕 수
(납읍리)

본 상
(요 행)



김 정 희
(고성1리)

본 상
(농어촌친움)



김 운 상
(하귀1리)

본 상
(환경보호)



양 지 식
(자연보호애월읍회)

본 상
(문화예술체육)



수산리새마을작은도서관
(회장 김신자)

본 상
(다문화가정)



김 은 주
(구엄리)

애월읍체육회·애월농협·하귀농협·자랑스러운 읍민대상 운영위원회 일동

애 월 읍 장 김 태 현
주 민 자 치 위 원 장 고 정 학
바 르 게 살 기 위 원 장 정 보 현
농업경영인애월읍회장 김 병 수

애 월 농 협 조 합 장 김 병 수
대한노인회애월읍분회장 박 정 심
연 합 청 년 회 장 하 명 중
애 월 라이온스클럽회장 강 중 우

하 귀 농 협 조 합 장 강 병 진
새 마을 지도 자 협 의 회 장 박 철 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조 성 익

이 장 단 협 의 회 장 김 홍 대
새 마을 부 녀 회 장 강 미 숙
농촌지도자애월읍회장 고 영 탁